

치 사

오늘 우리 종단 불교사회연구소
개소식에 오신 사부대중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취임 초에 33대 종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회연구소 설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왔는데,
오늘 드디어 연구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설립에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회와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기금을
종단 연구소 기금으로 맡겨 주신
봉선사 주지 인묵스님과 교구 대중,
그리고 환경연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단은 이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하여
불교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한국사회와
인류세계의 제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100년 동안 불교는
한국사회의 주요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대화**

민주화운동의 도도한 흐름에서 불교계는 소수의 선각자 이외에는 문외한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사회의 각종 현안에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 열기로 뜨거울 때 종단은 내홍으로 불자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조계종단은 이러한 과거를 성찰하고 새시대를 열어 갈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종단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안으로 결사

정신으로 쇄신을 기하고 밖으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하여 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문을 여는 불교 사회연구소는 사회 각계각층의 불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 나갈 대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모여 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부대중이 자주 모여 소통하고
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와
종단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우리종단에서 사회연구소가
설립됨을 사부대중과 더불어 기뻐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